

#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화불안과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 : 효 의식의 매개효과

## The Effect that Familism Recognized by College Students have on Anxiety Over Aaging and Elderly Group's Attitude: Mediation Effect of a Sense of Filial Duty

김정희\*, 임병우\*\*

서울여자대학원\*,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Jeonghui Kim(junghui0813@naver.com)\*, Byungwoo Lim(leuyn@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화불안과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효 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 경기도 성남, 안양, 인천, 그리고 서울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6년 5월 2일부터 6월 28일 까지 설문 조사하여 불완전 응답 34부를 제외한 16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가족주의, 노화불안, 노인연령집단 태도, 효 의식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은 VIF 값의 수치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둘째,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화불안,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셋째,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효의식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매개효과 유의성 확인을 위해 Sobel이 제안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의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효 의식의 매개효과 검증을 토대로 핵가족·고령화 사회의 대학생과 노인세대 간의 가족주의 및 효 의식의 함양과 미래에 야기되는 대학생의 노화불안 감소를 위한 사회복지개입실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가족주의 | 노화불안 | 노인연령집단 태도 | 효 의식 | 매개효과 |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effect that familism recognized by college students has on anxiety over aging and elderly group's attitude as well as mediation effect of a sense of filial duty. For study analysis, 200 college students studying at colleges in Sungnam, Anyang and Incheon in Gyeonggi-do as well as in Seoul were survey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May 2, 2016 to June 28, 2016. All of 166 responses except for 34 incomplete ones were used for analysis. Firstly, analysis result confirmed correlation among familism, anxiety over aging, elderly group's attitude and variables in sense of filial duty. Multicollinearity between variables were confirmed using VIF values. Secondly, the effect that familism recognized by college students has on anxiety over aging and elderly group's attitude was confirmed. Thirdly, partial mediation effect of a sense of filial duty was confirmed in the effect that familism recognized by college students has on anxiety over aging. In addition, Sobel Test suggested by Sobel was conducted to verify significance of the mediation effect. This study suggests intervention in and practice of social welfare to promote familism and a sense of filial duty between college students and elderly generation in this era of nuclear family and aging society as well as reduction of anxiety over aging on the part of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verified mediation effect of a sense of filial duty in the effect that familism recognized by college students in aging society has on anxiety over aging.

■ keyword : | Familism | Anxiety Over Aging | Elderly Group's Attitude | A Sense of Filial Duty | Mediation Effect |

## 1. 서론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인구구성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현재 13.50%, 2020년 15.70%, 2030년 24.30%, 2040년 32.30%, 2050년 37.40%, 2060년 40.10%로 예측되어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유추할 수 있다[1]. 뿐만 아니라 저 출산과 사망률의 감소추세는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감 및 자신의 노후에 대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대학생의 노후에 대한 노화불안은 김옥의 “대학생의 노화불안 연구”, 김옥의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 장현숙·김진옥의 “대학생의 노화불안과 효 의식 연구”에서 이미 보고되었다[2-4]. 초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학생이 느끼는 가족주의, 노화불안과 노인연령집단 태도 및 효 의식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노인연령집단 태도와 가치는 그 사회의 정책, 제도, 인식 등의 전반적인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 노인에 대한 외모, 사회적 역할 등의 부정적 인식의 확산은 노인의 사회문제 확산과 초고령사회로 진입에 있어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5]. 한정란은 연령집단 간의 노인에 대한 태도 비교연구에서 대학생들의 노인의 외모에 대하여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5]. 김미혜의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6]. 연구결과는 빠르게 증가 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대학생의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입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전환을 위한 학문적 연구와 정책반영을 위한 필요성을 언급한다.

또한 전통사회는 경로효친(敬老孝親)을 중요하게 여겨 노인을 공경하고 섬겨왔다. 특히 대가족 구조의 가족친화적인 가족공동체의 복지와 안녕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산업화, 핵가족화, 기술 발달 등의 요인들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가족주의 방식으로 효의 규범화를 약화 시켜 물질적·제도적 장치의 침식을 초래하였다[7]. 장현숙·김진옥도 대

학생들의 노화불안과 효 의식 간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여 효 의식의 기제로써 작동하는 가족주의 가치관의 감소는 노화불안을 증가시키는 기제로 보고하였다[4]. 즉, 대학생들의 효 의식의 부재는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경험하게 하여 결국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귀결을 예측할 수 있으며, 대학생의 미래 노후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래에 야기 되는 노화불안 기제로써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효 의식은 노인과 대학생을 포함하는 세대 간의 통합과 화합을 돌출시키는 동양 사상의 기제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현대사회 대학생의 효 의식의 감소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고령화 사회의 사회복지정책·실천 개입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노인 공경에 대한 유교적 사상은 개인의 존엄과 개인주의 가치관과 혼재 되면서 세대 간의 갈등 촉발과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노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귀결은 물론이며, 노화불안은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보고된 선행연구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4]. 즉, 젊음지향적인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편견과 효 의식 배제를 예측할 수 있어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 노화불안, 노인연령집단 태도, 효 의식 간의 연구는 고령화 사회 진입 시점에서 연구의 설득력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의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와 노화불안 및 노인연령집단 태도 간의 관계에서 효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노화불안 해소 및 고령화 사회에서 대학생과 노인 세대 간의 사회통합을 위한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지향은 물론이며, 성공적인 노후 설계 촉진과 효 의식 제고방안 및 향후 효과적인 정책방안 모색과 초고령화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과 후속연구 제언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대학생이 인식하는 노화불안

노화불안은 신체·심리정서·사회적으로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즉, 생애주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

하는 현상으로 현재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예쁘게 보여야 하는 것과 건강한 신체적 기능을 유지 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나타내는 신체적 노화에 대한 불안이다. 그리고 나이 들어감에 따라 심리·정서적으로 위축되어 느끼는 심리적 노화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노화불안과 가정 내의 역할 상실, 노동시장에서 역할 상실 등의 사회적 역할의 감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회적 노화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미래에 야기되는 노화에 대하여 느끼는 불안을 의미한다[8]. 노화불안은 노화나 질병 등의 요인에 의해 죽음에 도달하는 불안도 포함한다. 그렇다고 노화불안의 부정적인 측면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화에 대한 노인 뿐 아니라 청년층·중장년층 등의 대상자들이 노인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도록 하여 개인이 미래에 경험하게 되는 노화에 대한 준비와 적응을 돕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대학생이 느끼는 노화불안은 부모세대의 모습에서 미래에 야기되는 자신의 미래를 예상하는 불안감도 예측되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 초래 및 미래 노후생활에 대한 두려움도 갖도록 한다는 상반된 견해는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4]. 또한 전진숙은 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이 아니라 “생리적 약화”로 노화를 제시하였으며, 생리적 약화는 쇠퇴를 초래하여 개인들 성장의 정점에 도달 후 시작되며 개인차를 보인다고 노화의 개념을 제시하였다[9]. Lasher & Faulkender은 나이 들어감에 따라 느끼게 되는 ‘노인에 대한 두려움(fear of old people)’, ‘심리적 불안정(psychological concerns)’, ‘신체적 외모에 대한 두려움(physical appearance)’, 나이 들어감에 따라 배우자 및 역할 상실 등에 대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fear of losses)’을 포함하는 노화불안 개념을 제시하였다[10].

특히 현재 노인세대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기대는 이전시대와는 다르게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중장년층 및 대학생의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수반하여 노화불안에 따른 심리적 불안정을 초래하여 대학생의 노화불안 귀결과 사회복지실천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혜선·한종숙·김정희는 간호 대학생의 노인유사체험은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물론이며 노화불안 완화에 긍정적인 기제가 된다는 연구결과를[11] 보고하여

대학생들의 노화불안 감소와 노인세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위한 설득력을 갖는다.

노화불안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노인에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인 불안정, 노화에 따른 외모에 대한 걱정, 역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의 Lasher & Faulkender의 네 가지 하위요인을 대학생이 인식하는 노화불안 정의로 사용하였다.

## 2. 대학생의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대한 인식

Allport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느낌을 감정적 요소로 보았으며, 그러한 대상들에 대하여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적 요소, 그리고 특정한 대상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이 갖게 되는 지식과 신념의 인지적 요소 세 가지를 구성요소로 하여 태도의 개념적 정의를 제시하였다[12]. 태도는 개인들 스스로 평가하는 주관적인 것으로 사람, 대상의 속성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연속선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설명된다[13]. 긍정적인 평가에서부터 부정적인 평가까지의 연속선상에 위치하여 태도를 측정하는 연구들은 긍정과 부정적인 양극단을 연속선 위에서 주어진 대상을 평가하도록 하는 의미분화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ing)를 사용하고 있지만, 태도를 측정함에 있어 인간의 심리적인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13]. 대학생의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인식은 대학생의 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미래에 야기되는 노화불안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을 갖도록 하여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 할 수 있는 기제가 된다.

안병운·이주일은 노인과 동거하는 대학생들은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또한 노인유사체험교육을 경험한 대학생들은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여[14] 노인유사체험교육과 일상생활에서 노인과 함께하는 빈번한 경험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한정란의 연구에서도 조부모와 자주 만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수록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러한 태도는 가정에서의 경험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였다[13]. 핵가족 가족구조에 따른 대학

생과 조부모와의 긍정적인 경험의 기회를 갖도록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정란·김귀자의 연구에서도 조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 형성은 노인에게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14]. 또한 김옥의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노인에게 대한 지식 및 태도 연구에서 노인에게 대한 심리적 지식과 가족에 대한 지식은 노인에게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2]. 특히 한국의 대도시 대학생들 보다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노인에게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의 노인과 바람직한 생활경험의 출발을 전제한다고 하였다. 이영숙·박경란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노년학 교육을 통해 노인에게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된다는 연구결과의 보고는[15] 젊음지향주의 사회에서 노인에게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전환으로써 대학생들에 대한 노년학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대한 대학생들의 긍정적인 인식은 노인과 자주 만나는 경험을 토대로 형성됨을 예측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핵가족 구조에서 노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인을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의식은 대학생의 노인과의 빈번한 만남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는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한정란의 연령집단에 대한 태도 척도문항으로 구성된 서로 상반된 형용사 20쌍의 척도 내용을 본 연구의 대학생이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16]. 형용사 20쌍은 “깨끗하다, 잘생겼다, 세련되다, 건강하다, 침착하다, 유식하다, 똑똑하다, 중요하다, 재주가 많다, 남을 잘 믿는다, 착하다, 부지런하다, 재미있다, 용기가 있다, 불만이 없다, 책임감이 있다, 명랑하다, 친절하다, 너그럽다, 정직하다” 이다.

### 3. 가족주의

가족구성원으로서 개인이 가족을 대상으로 갖게 되는 생각, 자세, 헌신의 정도와 개인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가족주의로 본다. Esping-Anderson은 가족구성

원의 욕구가 충족 되도록 하는 가족복지 차원에서 가족이 책임지도록 하는 철학적 사상에 기반을 둔 가족주의(familialism)를 설명하였다[17]. 윤흥식은 Esping-Anderson의 가족주의(familialism)를 여성의 돌봄 역할과 부양의무의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남성의 역할과 구분하는 가정 내 성별분업을 전제한 경제적 의존 시각의 성별 역할에 따른 가족주의의 접근으로 해석하였다[18]. 가족에 대한 이해를 우선하고 가족 내 성별 분업을 전제하지 않는 가족주의(familism)개념과는 구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가족주의의 가치관은 가족구성원 개인이 가족을 대상으로 갖는 가치관으로 오랜 동안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의 규범으로 녹아 있는 가족중심적집합주의의 규범원리로서 사회구성원들 삶의 속에서 기본적인 가치를 형성하는 이념이다[19].

또한 김원식은 개인은 언제나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가족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삶의 방식으로 규정 하여 가족주의 개념을 제시하였다[20]. 그리고 가족주의는 사회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신념과 태도를 구성하고 사회구성원들의 바람직한 사회유형의 조작원리가 되며 행동을 규제하면서 이끌어 가는 본질적인 사회 원리의 한 부분으로 정의 하였다. 가족을 구성하는 가정 내의 평화로운 삶을 중시하는 가족중심의 이익을 지향하는 물질적 풍요를 유발하는 힘의 기제로써 가족주의를 제시하였다[21]. 상술한바와 같이 학자 마다 가족주의를 다르게 정의 하고 있지만, 가족주의가 갖는 가족구성원들의 행동 규약으로써 갖는 공통적인 의미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가족구성원들의 행복한 삶의 증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견해는 여전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예측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가족을 개인보다 더 중시하고 가족적 인간관계를 가족 이외의 사회관계에까지 의제적(擬制的)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사상이 점차 감소되어 개인주의 성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 이전 시대의 가부장제 구조 사회에서 여성의 남성에게 예측되는 것과 자녀와 부모간의 관계에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효를 중시하는 가족주의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또한 가족주의 의식은 사회의식과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하고 지속되고 있다[22]. 이전시대의 가족

주의와 현대사회의 가족주의 사상은 확대가족 구조에서 핵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가족주의의 개인주의화에 영향을 주었다. 정순돌·정주희는 산업화 및 도시화의 영향은 가족주의 가치관 퇴색 초래와 가족구성원 간의 권위적인 이전 세대의 구도보다는 수평적인 구도로 전환하고 있어 웃어른과 부모에 대한 공경보다는 무관심 등의 부정적 인식을 초래요인으로 보고하여[23]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올바른 정립을 시사하였다.

고령화 사회의 노부모에 대한 효의 실천은 부양의무감에서 출발하는 부양문제의 발생과 이에 따른 사회 혼란의 예방을 위한 현대사회의 가족사회 윤리, 가족의 문화, 가족관계 질서의 새로운 정립을 시사한다[24]. 가족관계의 질서란, 요컨대 자녀들의 부모와 윗세대에 대한 인식, 미래의 노부모의 돌봄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감, 더 나아가 자신의 미래에 직면하는 노화에 대한 인식에 기반을 둔 새로운 가족주의의 정립인 것이다. 바람직한 가족주의 가치관 정립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가족주의 기능 회복을 위한 기초를 이루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Bardis의 척도를 Chun, Knight & Yoon이 수정하여 구성한 것을 전미애가 변안하여 연구에 적용한 가족주의 개념으로 개인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갖고 있는 가족에 대한 생각이나 자세, 헌신 등의 가치관을 가족주의 정의로 사용하였다[25][39].

#### 4. 효 의식

효는 부모나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가짐으로부터 시작하는 유교적 덕목으로 부모-자녀 간의 관계로부터 출발하여 통합성 증진은 물론이며, 관계능력의 역량(ability)이다. 다양하고 변화하는 환경을 관찰하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존경·지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배려하면서 변화된 가치를 부모에게 요청하고 내재되어 숨어 있는 책임감을 겉으로 드러내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완성한다[26]. 효의 범위 내에서 효의 출발과 효의식 형성은 자명한 사실이다. 효의 범위에 대한 효의식 범위는 가족, 이웃,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미시체계의 관계를 포함하며 또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하여 인간의 본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에 있는 돌봄의 행위로 연계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사회적 분위기 근간이 되는 ‘효’이며 ‘효’는 부모나 집안의 웃어른에 대한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포함하는 가치규범으로 설명된다[4].

효 의식의 기원은 삼국시대 이후 고려, 조선의 유교 경전을 통하여 돌봄, 관심, 존경 등의 행동규범을 기반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또한 제사를 통한 조상에 대한 자손들의 계승의식 의미를 담고 있다[4]. 그리고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에 영향을 주는 기본 가치이념으로써 전통적으로 자신을 낳아주고 양육을 위해 자녀에 대하여 희생과 사랑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해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봉양과 공경의 의미가 녹아 있는 효심이다. 또한 자신을 낳아 준 부모 외에 웃어른에 대한 존경의 마음도 포함하는 경로심의 개념으로 설명된다[19][27]. 즉, 효 의식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과 공경을 포함하여 부모에 대한 심리적인 공경과 존경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러한 사상은 유교의 핵심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적 문화는 세대 간의 관계에서 아랫사람이 웃어른들에게 지켜야할 세대 간의 윤리규정으로 젊은 세대의 도리이자 의무로 규정하여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또한 가족의 기능에서 가족 간의 정서적 통합을 제공하는 역할에서 가족의 구조는 변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지되는 사상이다[17]. 정서적 통합은 효 의식을 갖도록 하는 기제로써 한 민족은 효를 조상에 대한 숭배, 부모에 대한 효도, 어른을 공경하는 등의 도리으로써 유교문화에서 시작되었다. 효를 행하는 주체는 자녀, 효의 대상은 부모로 제시하여 효를 행하는 자녀의 입장에서 정의하고 있다[28].

효 의식은 예절, 돌봄, 복종, 웃어른에 대한 의무를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모든 인간교육의 으뜸으로 효를 중시하였으며, 효를 사회구성원들의 통치와 교육의 근간으로 삼아왔을 만큼 효는 사회 깊숙이 침투되어 있다. 서구에서는 “가족에 대한 강력한 관심의 이유는 자신의 자녀들이 따라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제공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가족에 대한 강력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좋은 모델을 제시하는 서구의 가족주의 사상도 우리나라의 사상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29].

부모에 대한 공경과 존경 중심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노인과 대학생 세대 간의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고 본다.

따라서 효 의식은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기본 가치 이념으로써 우리 삶에서 효 실천을 위한 효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대학생의 효 의식 고취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효 의식을 반영하기에 적절한 Gallois의 척도 구성 내용을 효 의식의 정의로 사용하였다. 효 의식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모님 돌보기, 부모님 존중, 부모님께 재정보조 하기, 부모님의 말씀 경청하기, 부모님 행복하게 만들기, 부모님과 자주 접촉하기의 여섯 가지이다[25].

### III. 선행연구 고찰

우리사회의 전통적 가치를 지배하는 가족주의의 가치관은 핵가족 사회의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에서 가치결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삶의 가치 아래 삶의 형성의 중요한 시기를 갖는 대학생의 가족주의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와 노화불안, 노인연령집단 태도, 효 의식을 살펴보는 연구는 핵가족 사회의 대학생의 고령화 사회를 바라보는 혜안을 제시한다. 즉, 고령화 사회의 대학생이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대한 인식과 미래에 야기되는 노화불안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는 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준비하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특히 자신의 부모와 노인 및 웃어른 세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대학생 자신의 미래에 야기되는 노화의 긍정적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 노화불안, 노인연령집단 태도, 효 의식 간의 관계 규명은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변인 간의 선행연구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와 노화불안 간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김옥의 “대학생의 노화불안 연구”에서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교육경험, 노인대상 봉

사경험, 노인과 함께 하는 생활경험의 양 등의 노인과 경험하는 생활경험의 질이 노화불안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2] 보고하였다. 대학생이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 대한 경험은 미래에 야기되는 노화불안 감소의 예측요인으로 대학생의 노화불안에 대한 이해와 해소방안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실천 함의를 갖는다. 또한 박현숙·조혜경은 여고생<sup>1)</sup>들은 노인과의 관계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감 해소를 위한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 경험은 노인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10] 보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고생의 신체 외모에 대한 노화불안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보고하였다. 여고생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노화불안 해소를 위한 가족 내의 노인에 대한 잦은 만남의 경험은 가족주의와 노화불안 간의 관계를 입증 하는 바이다. 장휘숙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과 노인에 대한 불안이 높다는 결과를[30] 보고하여 대학생들의 신체적 노화불안에 대한 실천적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주었다. 그리고 김미혜도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인식 연구결과를[6] 보고하여 고령화 사회의 청년층과 노인세대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둘째,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와 노인연령집단 태도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정란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 노인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연구결과로[5] 보고하였다. 초등학교 대상자들은 노인연령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고학력일수록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또한 노인과의 친밀감이 조성될 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노인과의 친밀감 조성은 긍정적인 가족관계의 선행조건으로써 세대 간의 긍정적 관계 형성과 인식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특히 노인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결과에 대한 노인과의 친밀감 형성 및 중요성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는 핵가족 구조의 가족주의 가치관 감소에 따른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대

1) 청년층의 15-24세의 연령을 반영하여 대학생과 여고생의 청년층임을 고려하여 선행연구 고찰에 반영함.

한 부정적 인식초래를 가능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사회적 영역에 대한 태도인식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 부정적 인식으로 보고되었다. 노인세대와 대학생과의 관계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통합프로그램의 개발 및 도입 필요와 핵가족 구조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지향을 위한 노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프로그램 확대를 제기한다. 백종욱은 대학생들의 높은 가족주의의 가치관은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며,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부양의무감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31] 보고하였다. 또한 김수영·손태홍·장수지·문경주는 대학생 집단의 노인관련 지식, 태도, 공동체 의식을 검증하였는데, 노인관련 교양수업 참여와 노인 및 노화를 체험한 대상자는 노인연령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다고 연구결과를[32]보고하였다. 노인관련 교육의 필요성 시사는 물론이며, 대학생의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초고령화사회의 패러다임 속에서 모든 세대의 고령친화적인 공동체 구축에 대한 제언을 하였는데 필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셋째, 가족주의와 효 의식 간의 연구를 살펴보면, 장현숙·김진옥은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노화불안과 효 의식 연구”에서 한국의 대학생은 나이가 많을수록, 형제자매 수가 많을수록 효 의식이 높고, 일본은 나이가 어릴수록 효 의식이 높다는 결과를[4] 보고하였다. 가족주의를 전제한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는 노인에 대한 효 의식 향상을 예측하도록 한다. 특히 한국 대학생 보다는 일본 대학생의 효 의식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일본의 가족에 대한 조기교육의 영향으로 여겨지며 효 의식 강화를 위한 가족주의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정혜는 기혼자녀들의 높은 효 의식은 가족주의 가치관의 증진과 부모 부양의 당위성에 대한 의식도 높다는 연구결과를[19] 보고하였다. 특히 도농 간의 효 의식 차이연구에서 도시보다는 농촌의 기혼자녀들의 효 의식, 가족주의 가치관, 부모 부양 의식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현대사회의 핵가족 구조에서 대학생들의 효 의식,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현대사회에

시사점을 주었다. 또한 배문조·김미성도 대학생의 효 의식 연구에서 남학생은 희생을 효도라고 생각하였으며, 여학생은 부모에 대한 애정, 동정을 효도라고 인식한다는 연구결과[33] 이전세대의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에 잔존해 있는 효의식의 인식으로 여겨진다. 또한 장현숙·김진옥은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노화불안과 효 의식 연구에서 한일 양국 대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노화불안을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4] 핵가족 가족구도에서 효 의식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가족주의, 노화불안, 노인연령집단 태도, 효 의식에 대한 인식은 가족구조가 변화하더라도 윗세대와 자신의 부모에 대하여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로 여겨진다. 또한 노인과 대학생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고령화 사회의 노인과 젊은 세대 간의 통합을 위한 관심과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가족중심의 노인 돌봄이 ‘돌봄의 사회화’로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풍양속의 유교적 사상은 우리생활에 지속되고 있어 적극적인 가족복지 정책 반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복지정책은 가족 내의 개인 뿐 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기제로 고령화 사회의 노인세대와 대학생들 간의 관계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미시적·거시적 측면의 개입을 전제해야한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사회발전의 저해를 초래 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 귀결되어 세대 간의 첨예한 갈등 촉발과 고령화 사회 진입의 가장 큰 사회적 위협의 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집단태도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반영하여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 노화불안, 효 의식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 IV.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화불안과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효 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은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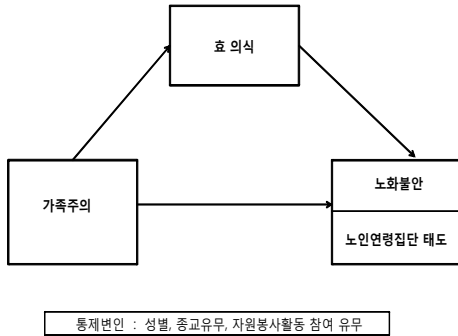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그리고 독립변인은 가족주의 변인이며, 종속변인은 노화불안(노인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불안정, 외모에 대한 걱정,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노인연령집단 태도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매개변인은 효 의식, 통제변인은 성별, 종교, 자원봉사활동 참여 유무로 설정하였다.

##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화불안 및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효 의식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에 소재한 대학교 1곳, 안양에 소재한 대학교 1곳, 인천에 소재한 대학교 1곳, 서울에 소재한 대학교 1곳에 재학 중인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6년 5월 2일부터 6월 28일 까지 설문조사 하였다. 총20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이중 불완전응답 34부를 제외한 166부의 설문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측정도구

### 3.1 종속변인

#### 3.1.1 노화불안(Anxiety about Aging)

노화불안은 ‘노인에 대한 두려움(fear of old people)’, ‘외모에 대한 걱정(physical appearance)’, ‘심리적 불안정(psychological concerns)’, ‘상실에 대한 두려움(fear of losses)’의 4개의 하위요인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는 Lasher & Faulkender(1993)의 AAS 척도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1’ ‘그렇다=2’, ‘보통이다=3’, ‘아니다=4’, ‘전혀 아니다=5’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높은 것으로 해석 한다. 또한 역문항(2, 5, 6, 8, 14, 17, 20)은 역코딩 전환 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원 척도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alpha=.82$ 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75$ 로 나타났다.

### 3.1.2 노인연령집단 태도

#### (Elderly Age Group Attitudes)

노인연령집단 태도의 척도는 노인 대상 뿐 만 아니라 초등학생 이상의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정서와 언어체계에 적절하도록 개발한 한정란(2004)의 연령집단에 대한 척도(2)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전혀 아니다=1’, ‘아니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써 긍정과 부정 형용사 20쌍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역문항(1, 2, 5, 8, 9, 10, 13, 14, 16, 18)은 역코딩 전환 후 분석에 투입하였다. 원척도 신뢰도 Cronbach’s  $\alpha=.78$ ,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78$ 나타났다.

### 3.2 매개변인 : 효 의식(Filial Piety)

효 의식 척도는 Gallois 등(1999)의 척도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척도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저 그렇다=3’, ‘그렇다=4’, ‘정말 그렇다=5’의 5 점 척도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효 의식의 점수가 높을수록 효 가치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원척도 신뢰도 Cronbach’s  $\alpha=.80 \sim .85$ ,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6$ 으로 나타났다.

### 3.3 독립변인 : 가족주의(Familism)

가족주의 척도는 Bardis(1959b)의 척도를 보완 후 Chun, Knight & Yoon(2007)이 연구에 적용한 척도를 전미애가 번안하여 한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간병인 대상으로 연구에 적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

2) 기존의 의미분화 척도의 한계를 보완·수정 후 연구에 사용한 한정란(2004)의 척도를 본 연구에 사용.



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0’, ‘그렇지 않다=1’, ‘그저 그렇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의 5점 척도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미국 거주 백인 간병인 대상 원척도 신뢰도 Cronbach’s  $\alpha=.84$ , 한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간병인 대상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81$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3$ 으로 나타났다.

### 3.4 통제변인 : 인구사회학적 요인

통제변인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종교’,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기관 외)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로 설정하였다.

성별은 ‘남성=1’, ‘여성=2’, 종교는 ‘기독교=1’, ‘천주교=2’, ‘불교=3’, ‘유교=4’, ‘무교=5’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는 ‘참여하였다=1’, ‘참여하지 않았다=2’로 측정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위한 성별, 종교, 노인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 참여 유무는 더미변수로 전환하여 최종분석<sup>3)</sup>에 투입하였음을 밝혀둔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분석방법을 다음과 같이 상술한다. 첫째, SPSS 21.0 을 사용하여 설문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파악을 위한 기술통계와 Pe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회귀분석 전에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해 공선성 통계량에 산출된 공차한계와 분산확대지수(VIF)를 확인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였다. 셋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매개변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검증방법을 사용 하였다. 또한 매개효과 경로 분석 확인을 위해 Sobel이 제안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본 연구의 표준편차, 왜도, 첨도의 소수점 자리의 분석 결과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분석결과 제시.

## 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설문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성별, 종교, 노인복지시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유무를 [표 1]과 같이 제시한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N=166)

변수	구분	빈도(N)	구성(%)	표준편차	왜도	첨도
1	남성	33	19.9	-	-	-
	여성	133	80.1			
2	기독교	48	28.9	1.70	-.16	-1.69
	천주교	19	11.4			
	불교	19	11.4			
	유교	16	9.6			
	무교	64	38.6			
3	참여	117	70.5	.46	.91	-1.20
	비 참여	49	29.5			

주) 1. 성별, 2. 종교, 3. 자원봉사활동 참여유무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33명(19.9%), 여성 133명(80.1%)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응답자의 종교를 살펴보면, 기독교 48명(28.9%), 천주교 19명(11.4%), 불교 19명(11.4%), 유교 16명(9.6%), 무교 64명(38.6%)으로 무교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노인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 참여 유무를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 참여 117명(70.5%), 자원봉사활동 비 참여 49명(29.5%)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비 참여 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 2. 주요 변인의 수준

본 연구의 가족주의, 노화불안, 노인연령집단 태도, 효 의식 수준을 살펴보면 [표 2]과 같다.

표 2. 가족주의, 노화불안, 노인연령집단 태도, 효 의식 수준

구분	평균 (M)	표준편차 (SD)	최소값 (Min)	최대값 (Max)	왜도	첨도
1	3.19	.52	1.56	4.44	.22	.46
2	2.97	.42	1.20	4.44	-1.57	4.55
3	2.93	.29	2.20	4.00	.19	2.73
4	3.52	.50	2.25	4.67	.16	-.03

주) 1. 가족주의, 2. 노화불안, 3. 노인연령집단 태도, 4. 효 의식

가족주의는 5점 만점에 전체평균 3.19(SD=.52), 최소값 1.56, 최대값 4.44, 왜도 .22, 첨도 .46의 수준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노화불안은 5점 만점에 전체평균 2.97(SD=.42) 최소값 1.20, 최대값 4.44, 왜도 -1.57, 첨도 4.55 수준을 확인 하였다. 노인연령집단 태도는 5점 만점에 전체평균 2.93(SD=.29), 최소값 2.20, 최대값 4.00, 왜도 .19, 첨도 2.73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효 의식은 5점 만점에 전체평균 3.52(SD=.50), 최소값 2.25, 최대값 4.67, 왜도 .16, 첨도 -.03의 수준을 확인하였다.

### 3.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Pe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수행하였으며 [표 3]과 같다.

표 3. 변수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1						
2	-.022	1					
3	.025	.133	1				
4	.152*	.203**	.100	1			
5	.026	.025	-.128	-.196*	1		
6	.010	.030	-.264**	-.339**	.442**	1	
7	.380**	-.093	.067	.266**	-.390**	-.321**	1

\*p<.05, \*\*p<.01, \*\*\*p<.001

주) 1=성별, 2=종교 유무, 3=자원봉사활동 참여 유무, 4=노인연령집단 태도, 5=효 의식, 6=가족주의, 7=노화불안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와 효 의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증가는 미래에 야기되는 노화불안을 감소시키는 관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대학생의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는 미래에 야기되는 노화불안을 증가시키는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가족주의는 노화불안, 노인연령집단 태도, 효 의식 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가족주의 변인은 노인복지기관 자원봉사활동 참여 유무, 노인연령집단 태도, 효 의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효 의식은 노인연령집단 태도 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가족주의와 효 의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증가는 미래에 야기되는 노화불안 감소

를 위한 예측과 해결방안을 제시 할 수 있다. 그리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존재하는 다중공선성을 고려해야한다. 본 연구는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분산확대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사용하여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VIF값은 3보다 작은 분석결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매개효과 분석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화불안 및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효 의식의 매개효과 검증은 Baron & Kenny(1986)의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은 3단계로 수행한다. 1단계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회귀분석 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다. 2단계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다. 3단계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두고 종속변인과 동시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회귀분석 결과 2단계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3단계의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보다 클 때 독립변수-매개변수-종속변수의 관계가 성립되며, 이때 독립변인의 효과가 '0'에 가까울수록 매개효과가 큰 것이며, '0'이 되면 완전매개효과인 것이다. 또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효과,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경유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간접효과로 제시되며, 전체 인과적 총 효과는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를 합산한 효과이다.

#### 4.1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효 의식의 매개효과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효 의식의 매개효과 확인을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모델 1, 모델2, 모델3으로 제시하였다.

모델1은 가족주의 독립변인과 효 의식 매개변인의 관계를 확인한 모형, 모델 2는 가족주의 독립변인과 노화불안 종속변인의 관계를 확인한 모형이다. 모델 3은 가

표 4.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효 의식의 매개효과 (N=166)

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독립변수 → 매개변수		독립변수 → 종속변수		독립변수, 매개변수 → 종속변수	
회귀계수	B(SE)	$\beta$	B(SE)	$\beta$	B(SE)	$\beta$
성별	.028(.088)	.022	.400(.071)	.382***	.408(.068)	.389***
종교 유무	.015(.073)	.015	-.062(.059)	-.072	-.058(.056)	-.067
자원봉사활동유무	-.017(.081)	-.015	-.018(.065)	-.019	-.022(.062)	-.024
가족주의	.425(.071)	.437***	-.267(.058)	-.328***	-.154(.060)	-.188*
효 의식	-		-		-.267(.060)	-.318**
상수	2.152***(SE=.283)		3.561***(SE=.229)		4.136***(SE=.252)	
R <sup>2</sup>	.196		.256		.337	
F(sig).	9.829***		13.826***		16.269***	

\*P<.05 \*\*P<.01 \*\*\*P<.001

주)성별, 종교, 자원봉사활동 참여 유무는 더미변수 전환하여 회귀분석 투입.

족주의 독립변인, 효 의식 매개변인을 독립변인으로 두고 노화불안 종속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확인한 모형으로 [표 4]와 같다.

모델1의 성별, 종교 유무, 자원봉사활동 참여 유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주의( $\beta=.437, p<.001$ ) 독립변인과 효 의식 매개변인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동시에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의 보여주었으며, 독립변인의 가족주의는 종속변인인 효 의식을 19.6% 설명하였다. 회귀모형적합도( $F_{값} 9.829, p<.001$ )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어 Baron & Kenny(1986)의 제1단계 조건이 충족되었다.

모델2에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성별( $\beta=.382, p<.001$ )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립변인인 가족주의( $\beta=-.328, p<.001$ )는 종속변인인 노화불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독립변인의 가족주의는 종속변인인 노화불안을 25.6%를 설명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회귀모형적합도( $F=13.826, p<.001$ )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제2단계를 충족하였다.

모델3에서 성별( $\beta=.389, p<.001$ )변인만이 노화불안 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가족주의 변인과 효 의식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두고 종속변인인 노화불안 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주의 변인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beta=-.328(p<.001)$ 에서  $\beta=-.188(p<.05)$ 로 감소되었

다. 또한 효 의식( $\beta=-.318, p<.01$ )변인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회귀모형적합도( $F=16.269, p<.001$ )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독립변인의 가족주의와 매개변인의 효 의식은 종속변인인 노화불안을 33.7%를 설명하고 있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제3단계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가족주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노화불안간의 관계에서 효 의식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가족주의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beta=-.328(p<.001)$ 이며 효 의식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정도는  $\beta=-.318(p<.01)$ 이다. 그리고 가족주의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beta=-.188(p<.05)$ 로 감소되었으며, 직접효과는  $\beta=-.188$ 이다. 또한 가족주의가 효 의식을 경유하여 노화불안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437 \times -.318 = -.139$ 이다. 총 인과적 효과는 직접효과(-.188)와 간접효과(-.139)를 합산한  $-.327$ 이다.

#### 4.2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인연령 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효 의식의 매개효과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효 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모델1, 모델2, 모델3으로 제시하였다.

모델1은 가족주의 독립변인과 효 의식 매개변인의 관계를 확인한 모형, 모델2는 가족주의 독립변인과 노인연령집단 태도의 종속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한 모형이

표 5.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효 의식의 매개효과 (N=166)

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독립변수 → 매개변수		독립변수 → 종속변수		독립변수, 매개변수 → 종속변수	
회귀계수	B(SE)	β	B(SE)	β	B(SE)	β
성별	.028(.088)	.022	.119(.052)	.163*	.120(.052)	.163*
종교 유무	.015(.073)	.015	.133(.043)	.221**	.133(.043)	.222**
자원봉사활동유무	-.017(.081)	-.015	-.017(.048)	-.027	-.018(.048)	-.028
가족주의	.425(.071)	.437***	-.202(.042)	-.354***	-.186(.047)	-.325***
효 의식	-		-		-.038(.047)	-.065
상수	2.152***(SE=.283)		3.417***(SE=.167)		3.500***(SE=.195)	
R <sup>2</sup>	.196		.187		.190	
F(sig.)	9.829***		9.242***		7.513***	

\*P<.05 \*\*P<.01 \*\*\*P<.001

주) 성별, 종교, 자원봉사활동 참여 유무는 더미변수 전환하여 회귀분석 투입.

며, 모델3은 가족주의 독립변인, 효 의식 매개변인을 독립변인으로 두고 노인연령집단 태도의 종속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간의 관계에서 효 의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모형으로 [표 5]와 같다.

모델1에서 성별, 종교 유무, 자원봉사활동 참여 유무의 인구사회학적특성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주의(β=.437, p<.001) 독립변인과 효 의식 매개변인을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의 보여주었으며,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19.6%를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회귀모형적합도(F값 9.829, p<.001)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어 Baron & Kenny(1986)의 제1단계 조건을 충족하였다.

모델2의 인구사회학적특성 변인에서 성별(β=.163, p<.05) 변인과 종교유무(β=.221, p<.01)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립변인인 가족주의는 종속변인인 노인연령집단 태도(β=-.354,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독립변인의 가족주의는 종속변인의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대한 18.7%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회귀모형적합도(F=9.242, p<.001)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제2단계를 충족하였다.

모델3에서 성별(β=.163, p<.05)변인과 종교 유무(β=.222, p<.01) 변인이 노인연령집단 태도 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가족주의 변인

과 효 의식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두고 종속변인인 노인연령집단 태도 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주의(β=-.325, p<.001)변인이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주의가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β=-.354(p<.001)에서 β=-.325(p<.001)로 감소되었다. 그리고 효 의식(β=-.065) 변인은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회귀모형적합도(F=7.513,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의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19.0%를 보여주었지만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통계적 유의성이 보이지 않아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제3단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가족주의가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효 의식의 매개효과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 4. 매개효과 유의성

효 의식의 매개효과 유의성 확인을 위해 Sobel이 제안한 Sobel Test공식을 사용하여 매개효과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Sobel Test 공식} : Z_{ab} = \frac{ab}{\sqrt{b^2 SE_a^2 + a^2 SE_b^2}}$$

a(비표준화 계수) : 독립변수→매개변수

b(비표준화 계수) : 매개변수→종속변수

SE<sub>a</sub> : a의 표준오차

SE<sub>b</sub> : b의 표준오차

Sobel Test공식을 사용하여 산출된 Z값이 1.9보다 큰 값을 보이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의 경로분석에서 Z값이 3.46의 결과를 보여주어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표 6]과 같다.

표 6. 효 의식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path	Z	P value	매개효과
a → b → c	3.46	0.0003	부분매개 효과 ○
a → b → d	-	-	매개효과 ×

a : 가족주의  
b : 효 의식  
c : 노화불안  
d : 노인연령집단 태도

## VI.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화불안 및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효 의식의 매개효과 검증은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가족주의 변인과 노화불안 간의 관계에서 효 의식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긍정적인 가족주의 가치관 지향과 노화불안 감소 및 효 의식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실천적 개입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학생의 긍정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은 노화불안 감소를 나타내는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김민희의 대학생의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노인에게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화불안을 덜 느끼며,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신체(외모)에 대한 노화불안이 더 높다는 결과를[2] 보고하였다. 김옥의 대학생의 노화불안 연구에서도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노인관련 교육 참여자와 자원봉사활동 경험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노화불안을 덜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 또한 장현숙·김진옥도 한일 대학생의 노화불안 비교연구에서 한국은 나이가 어릴수록, 여학생일수록 노화불안을 더 느끼며, 일본은 인구사회학적특성 변인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는 결과를[4] 보고하였다. 박재숙·성희자의 연구에서도 사회복지사의 노인에게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노화불안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35] 보고하였다. 김미혜도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들의 노인에게 대한 부정적 태도인식을 연구결과로[6]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정희·안영식·윤소정도 대학생의 노인과 동거경험 유무는 노화불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36]. 또한 박현숙·조혜정의 노인에게 다양한 경험을 빈번하게 할수록 노화불안을 덜 느끼며 노인에게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조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노화불안을 덜 느낀다는 연구결과를[10]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의 가족주의와 노화불안 간의 관계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둘째,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은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한다. 백종욱의 대학생들의 노인에게 대한 태도 및 부양의식에 대한 연구에서 노인에게 대한 가족주의 가치관의 긍정적인 증가는 노인에게 대한 태도를 증가시켰을 뿐 만 아니라, 부양의식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31] 보고하였다. 또한 가정 내의 자녀와 노부모 세대 간의 인식의 차이는 노인에게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갖도록 한다고 보고하여 가족주의와 노인연령집단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하였다[6]. 또한 안병운·이주일도 대학생들의 노인유사체험교육 참여 대상자는 비참여 대상자보다 노인에게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또한 노인과 동거하는 대학생들도 노인에게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14]. 또한 김수영·손태홍·장수지·문경주의 연구에서도 노인과 노화에 대한 인식관련 대학생 대상 교육은 노인과 노화에 대한 긍정적 변화는 물론이며, 세대 간 공존을 위한 중요함을 보고하였다[32]. 가족구조는 이전시대의 대가족 제도 구도에서의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기제로 해석된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가족주의 변인과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대한 긍정·부정적 인식을 확인하였다.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노인과 동거 경험은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을 하여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기제임

을 확인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긍정적인 가족주의 인식은 긍정적인 효 의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성용의 연구에서 가족주의는 개인의 효 행위를 행하게 하는 기제로써 유의한 관계를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으며 [7], 또한 효 행위는 효 의식을 갖게 하는 기제임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최정혜도 대학생의 높은 효 의식을 보고하였으며[19], 특히 효 의식이 높은 집단은 가족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여 가족주의와 효 의식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노년층, 청년층, 청년층 대상의 가족주의 가치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제가 된다는 효 의식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김태균의 연구에서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긍정적인 관계는 청소년의 효 의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28]. 부모-자녀 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대학생들의 가족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기제로 작동할 것으로 여겨진다. 제시한바와 같이 선행연구는 본 연구의 가족주의와 효 의식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와 유사한 결과로 보고되어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넷째,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 변인과 노화불안 변인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효 의식의 매개효과를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의 조건을 사용하여 효 의식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한숙정·김효선의 대학생의 노화불안 영향 요인 연구에서 노인연령집단에 대한 태도, 노인과 동거 경험, 노인 부양의식, 노인에 대한 지식 등이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어[37]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상술한바와 같이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가족주의 가치관 증진과 노화불안 감소,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효 의식의 지향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실천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한다.

첫째, 핵가족 가족구조의 변화는 개인주의 성향을 증가시켜 가족주의에 대한 가치관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어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적절한 가족주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개입 방안으로 핵가족의 가족구조에서 훼손되어지는 가족주의 가치관 증진을 위한

가족구성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유인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왜냐하면 노인과 대학생 간의 갈등해소와 효 의식 고무를 위함이다.

둘째, 대학생들의 미래에 야기되는 노화불안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실천적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 요컨대, 현재 각 학교의 사회복지학과와 '생애주기의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 대한 필수과목을 개설하여 미래에 야기되는 노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식을 갖도록 학교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박현숙·조해경의 노화불안 연구에서 특히 여고생은 신체적 노화에 대한 노화불안을 많이 느끼는 연구결과에서[10] 보여주었듯이 신체 및 사회적 노화 등에 대한 생애주기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인숙의 연구에서도 외모차별에서 오는 부당한 대우와 개인에 대한 외모 기준 판단의 차별사회는 노화불안 수위를 높여준다는 연구결과에서[38] 설득력을 갖는다.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고령화 사회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기제가 될 것이다. 또한 미래에 야기되는 노화불안에 대한 생애주기의 자연스러운 발달과정에 대한 인식의 귀결은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물론, 대학생 스스로 성공적 노후를 위한 설계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핵가족 가족구조에 따른 대학생들의 가족주의 가치관 변화와 효 의식의 지향과 미래에 야기되는 노화불안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는 당연한 것이다.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를 고려한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위한 노인과 경험 확대와 대학교육과정의 필수교양과목 이수 제언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본다. 정혜선·한중숙·김정희의 간호대학생의 노인유사 경험은 노화불안 감소와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한다는 연구결과에서[11] 이미 입증된 바이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명제는 노화불안을 증가시킨다는 자명한 사실이다. 부정적 태도를 해소하기 위한 대학생과 노인 간의 경험 및 지식 습득을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한 경험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습득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의 방송이나 노인복지기관 등

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보다는 노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인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입 방안을 제언한다.

셋째, 대학생의 노화불안 감소와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촉진할 수 있는 노인관련 교육과 경험을 적극 반영한 교육이 필요하다.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를 적극 반영한 고령화 사회의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에서 특히 노인이 경험하는 노화에 대한 대학생의 긍정적 인식을 위한 현재 시군구에 소재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인인구와 대학생 세대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경험 확대를 제언한다. 이러한 경험은 생애주기에 발생하는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은 고령화 사회의 우선과제로 시행되어야 한다.

넷째, 현대사회의 가족구조를 살펴보면, 핵가족 구조와 노인 가족 구조가 과거의 확대가족 구조보다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변화의 추이를 고려한다면, 사회구성원들의 노인인에 대한 인식과 노화불안에 대한 무관심의 현상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대학생들의 가족주의에 토대를 둔 효의식의 지향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친화프로그램<sup>4)</sup>의 확대를 제언한다. 가족친화프로그램의 확대는 노인인구와 대학생 간의 소통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노인인구와 대학생들과의 사회통합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제로 여겨진다. 현재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친화교육에서는 건강한 가정의 완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령화 사회의 노인인과 대학생들 간의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의의를 다음과 같이 상술한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경기도 성남, 안양, 인천, 서울에 소재한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확대와 확률표집을 통한 연구결과와 일반화가 필요하다.

둘째,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와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노화불안의 증가는 대학생과 노인세대 간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생과 노인세대 간의 부정적 인식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학문적 관심과 적극적인 사회복지실천의 토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빠르게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적극 반영한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효 의식의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대학생의 미래에 야기되는 노화불안 감소와 성공적 노후 준비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1] <http://kosis>(2016년 8월 13일 다운자료)
- [2] 김옥, “대학생의 노화불안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학회, 제15권, 제9호, pp.27-56, 2011.
- [3] 김옥, “대학생의 노인인에 대한 태도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6권, pp.421-442, 2014.
- [4] 장현숙, 김진옥, “대학생의 노화불안과 효 의식 연구 : 한·일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0, No.1, pp.185-204, 2016.
- [5] 한정란, “연령집단간 노인인에 대한 태도 비교 연구,” 인구교육센터, 제1권, 제1호, pp.61-83, 2008.
- [6] 김미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노인인에 대한 태도 연구,” 사회과학 연구논총, Vol.8, pp.69-89, 2002.
- [7] 이성용, “가족주의와 효,” 한국인구학, Vol.29, No.2, pp.215-240, 2006.
- [8] 김정희, 박지영, “노인의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

4)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예시하여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 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9호, pp.210-222, 2015.
- [9] 전진숙, “노화의 개념,” 생물치료정신의학, 제13권, 제2호, pp.129-137, 2007.
- [10] K. P. Lasher and P. J. Faulkender,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 Development of the about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37, No.4, pp.247-259, 1993.
- [11] 정혜선, 한종숙, 김정희,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노인유사체험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2호, pp.832-843, 2011.
- [12] G. W. Allport, *Personality :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Y: H. Holt and Company, 1937.
- [13] 한정란, “연령집단에 대한 척도 개발 연구,” 한국노년학, Vol.24, No.3, pp.197-210, 2004.
- [14] 한정란, 김귀자, “부모이 노인 및 조부모에 대한 태도와 자녀의 조부모에 대한 친밀감 :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노인복지학회, Vol.19, No.0, pp.61-82, 2003.
- [15] 이영숙, 박정란, “노년학 교육이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Vol.21, No.3, pp.29-41, 2002.
- [16] 한정란, “중·고등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서울지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교육학연구, Vol.17, No.2, pp.175-200, 2004.
- [17] Esping-Anderson, 박시중 역, *복지체제의 위기와 대응*, 서울대학출판부, 2007.
- [18] 윤홍식, “가족주의와 가족정책 재유형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 한국사회복지학, Vol.64, No.4, pp.261-284, 2011.
- [19] 최정혜, “대학생의 효의식과 가족주의의 가치관 및 부모 부양의식,” 대한가정학회지, Vol.35, No.6, pp.55-69, 1997.
- [20] 김원식, “동아시아의 가족주의 전통과 민주주의,” 사회와 철학, Vol.5, pp.129-154, 2003.
- [21] 박영신, *역사와 사회변동*, 대영사, 1987.
- [22] 김현옥, “가족주의 의식의 구성과 변화,” 가족과 문화, Vol.14, No.1, pp.3-30, 2002
- [23] 정순돌, 정주희, “가족관련 요인이 연령주의에 미치는 영향: 세대별 차이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Vol.45, pp.149-170, 2014.
- [24] 이덕식, “가족주의에서 나타난 효와 부양의 고찰,” 사회과학연구, Vol.32, No.2, pp.173-209, 2015.
- [25] 노년학척도집, 한국노년학포럼 엮음, 나눔의 집, 2010.
- [26] 류한근, “효 의식의 조사를 위한 척도 연구,” 효의학 연구, Vol.13, pp.105-121, 2011.
- [27] 범기수, 김은정, “부모의 갈등관리유형에 따른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효 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Vol.55, No.4, pp.261-283, 2011.
- [28] 김태균, “부모의 효의식,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효 의식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한국효학회, Vol.22, pp.173-193, 2015.
- [29] P. Sayegh and B. G. Knight, “The effects of familism and cultural justification on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family of caregivers. *Journal of Gerontology : Psychological Sciences*, Vol.66B, No.1, pp.3-14, 2010.
- [30] 장휘숙, “대학생과 노인의 노화불안과 특성불안 및 5요인 성격특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Vol.25, No.1, pp.1-18, 2012.
- [31] 백종욱, “대학생들의 가족주의 가치관 및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임상사회사업연구, Vol.10, No.3, pp.1-19, 2014.
- [32] 김수영, 손태홍, 장수지, 문경주, “대학생집단의 대상 노인 관련 효과성,” 한국노인복지학회, Vol.71, No.1, pp.53-84, 2016.
- [33] 배문조, 김미성, “대학생의 효 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Vol.309, 2010.
- [34] 김민희, “노인접촉,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죽음불안이 대학생의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Vol.19, No.3, pp.435-456, 2013.
- [35] 박재숙, 성희자, “사회복지사의 노화불안과 노인에 대한 태도,” 한국사회복지교육, Vol.13, No.13,



pp.1-26, 2010.

- [36] 이정희, 안영식, 윤소정, “노인과의 동거 및 노인  
에 대한 교육경험이 노화지식 및 노후불안에 미  
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Vol.27, No.2, pp.345-355,  
2007.
- [37] 유수현, 성준모, 김태동, “대도시 아파트 주민의  
가족주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학  
회, Vol.3, No.3, pp.129-151, 2006.
- [38] 한숙정, 김효선, “대학생의 노화불안에 대한 영  
향요인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Vol.16, No.2,  
pp.1164-1174, 2015.
- [39] M. Chun, B. Knight, and G. H. Yoon, “ifferences in  
stress and coping models of emotional distress  
among Korean, Korean-American and White  
American caregivers,” Aging & Mental Health,  
Vol.11, No.1, pp.20-29, 2007.

### 저 자 소 개

김 정 희(JeongHui Kim)

정회원



- 2010년 :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 2013년 : 경기대 일반대학원 사  
회복지학과
- 2015년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2014년 3월 2일 ~ 현재 : 오산대

아동보육과 외래강사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및 행정(노인)

임 병 우(Byungwoo Lim)

정회원



- 1989년 : 건국대학교 농업교육학사
- 1995년 : University of Kent  
MA in Social Work
- 1998년 : University of Kent  
Ph-D in Social Work
- 2017년 : 성결대 사회복지학과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노인)